

# 네카오 웹툰, 효자노릇 ‘톡톡’... 외형성장 전략엔 상반행보

(네이버+카카오)

네이버, 올해 美 증시 상장 목표  
상장 시기 이르면 올 6월 될 전망  
카카오, 경영진 사법 리스크 집중  
당분간 내실 다지기에 주력 방침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 사업이 새로운 알짜 사업으로 급부상했다. 다만, 두 회사의 웹툰 관련 외형 성장 전략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네이버 웹툰은 올해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해외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카카오엔터는 IPO(기업공개) 추진을 보류하고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분위기가 있다.

27일 시장조사업체인 마켓그로스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웹툰시장 규모는 39억달러(약 5조2000억원) 수준이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피코마가 업계 1위를 다투면서 시장 규모를 확장시켰다.

지난해 12월 네이버웹툰의 일본 플랫폼인 ‘라인망가’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023만 명을 기록했다. 카카오의 디지털 만화 플랫폼인 ‘픽코마’도 1000만 명 넘는 MAU를 보유하고 있다. 두 앱의 일본 웹툰시장 점유율은 59%에 달한다.

카카오 픽코마는 일본 내 게임을 포함한 전체 앱 중에서 지난해 연간 매출 1위를 달성했다. 특히 만화 단일 앱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 최초로 연간 거래액 1000억엔(한화 약 8889억원)을 돌파했다.

픽코마는 데이터에이아이아가 집계한 ‘2023 모바일 앱 마켓 소비자 지출’ 순위에서도 게임을 포함한 전체 카테고리 ‘일본 1위’, ‘글로벌 17위(게임 앱 제외 7위)’에 올랐다.

네이버웹툰 역시 고른 성장세를 보이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뉴시스

고 있다. 네이버 웹툰은 분사한 지 6년 만에 지난해 연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첫 흑자를 달성했다. EBITDA는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다. 네이버웹툰의 지난해 글로벌 거래액은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한 약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두 회사의 웹툰 수익성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상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웹툰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네이버 지분 71.2%)는 미국 나스닥 입성을 위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했다. 상장 시기는 이르면 올해 6월이 될 전망이다. 목표 기업가치는 30억~40억달러(약 4조65억~5조3420억원)로 추산되며, 이번 상장을 통해 최대 5억달러(약 6700억원)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증권가는 네이버웹툰의 미국 상장이 모회사인 네이버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웹툰 기업의 상장은 전세계적으로 드문 데다 비교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웨이문그룹(Yuwen Group)의 시

가총액도 상장 초기보다 현재 72%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카카오피코마를 운영하는 카카오엔터는 증시 상장을 염두했지만 보류한다. 연이어 발생한 경영진 사법 리스크로 당분간 내실 다지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카카오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의혹까지 휘말리며 경영진을 대거 교체하고 나섰다. 이처럼 내부 과제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IPO를 추진할 여력이 없다는 평가다.

다만,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의 글로벌 진출을 실현할 핵심 계열사로 꼽혀왔다. 지난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관청(GIC)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를 받은 데 이어 시가총액 1조원대인 SM엔터테인먼트 인수까지 추진하며 성장 기대감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카카오엔터가 알짜 사업인 카카오피코마를 활용해서 시장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엔터의 IPO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법리스크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SW 역량 강화

모빌리티 SW 해커톤 개최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 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섰다.

현대모비스는 SW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빌리티 SW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수 인재 확보 차원으로 진행된 이 대회에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SW 개발을 목표로 다수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경연에서는 안전과 편의를 키워드로 한 미래 SW 개발자들의 아이디어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은 이번 모빌리티 SW 해커톤에는 국내 16개 대학 SW 동아리와 개발자들이 16개 팀을 이뤄 총 60명이 참여해 SW 개발 실력을 겨뤘다.

지난달 참가팀 선발 이후 2주 간 사전 임베디드(차량용 기능과 같은 내장 시스템) SW 교육을 제공해 결과물 퀄리티를 높였고, 3주 간의 팀별 개발 프로젝트를 거쳐 지난 23일 종일에 걸쳐



현대모비스가 진행한 ‘모빌리티 SW 해커톤’ 대회에서 대학생들이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분야 편의·안전 기술을 주제로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다.

해커톤 본 행사가 진행됐다.

참가팀들은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분야에 걸쳐 각각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4개 주제 중 하나를 택해 임베디드 SW로 구현 가능한 모빌리티 최적화 SW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모빌리티 상황 판단’ ‘주차 자동화’ ‘운전자 건강-모빌리티 연결’ ‘차량 기능-인포테인먼트 연계’ 등이 대표적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중진공, 中 海외진출 추가 지원 나선다

남동발전 본사서 업무협약 체결  
해외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등 협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남동발전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추가로 돕는다.

중진공은 남동발전과 경남 진주 남동발전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수출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중진공과 한국남동발전은 협약을 통

해 ▲기관이 보유한 해외거점 간 협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현지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추진 ▲지원기업 대상 해외진출 관련 정보 상호 제공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홍보, 사업 연계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진공은 수출바우처 등 정책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발전 분야 해외시장 진출 노하우를 비롯한 양질의 정보와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참가 기회 등을 제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 제고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KT “AI 등 디지털생태계 주도권 확보”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 서울 개최  
AI 통한 디지털국가 발전 주제 진행  
6G·생성형 인공지능 등 미래 논의

KT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함께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 서울(M360 APAC 서울)’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KT는 26일(현지 시각)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4’ 전시장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2024년 M360 APAC 서울 개최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영섭 KT 대표,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KT는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 M360 APAC 서울에서도 호스트 스폰서를 맡은 바 있다.

M360은 GSAMA가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모바일 산업 현안에 대해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지역별 주제를 선정해 IC



(왼쪽부터)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김영섭 KT 대표,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이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2024” 현장에서 “M360 APAC 서울” 개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T 업계의 어젠다를 논의하고 있다. 콘퍼런스뿐 아니라 참여 기업들의 소규모 전시도 마련돼 최신 모바일 기술과 동향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올해 M360 APAC 서울은 ‘AI를 통한 디지털국가 발전(Advancing Digital Nations with AI)’을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외 주요 IT 기업의 리더들과 과기정통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및 학계 주요 인사가 참석해 산업별 디지털전환(DX), 생성형 인공지능(GenAI), 6세대 이동통신(6G),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논의한다.

김영섭 대표는 “올해도 M360 APAC 서울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AI 등 디지털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 중기중앙회

정기총회 450여명 참석  
50인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표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정기총회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제62회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최근 중소기업계는 연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등으로 정신이 없었다”며 “오는 4월 총선으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는 제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KAIDA

틸 셰어 16대 회장 재선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티ل 셰어 사장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KAIDA는 2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총회를 열고 셰어 사장을 16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틸 셰어 회장은 2021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하고 2022년 3월 제15대 협회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틸 셰어 회장은 KAIDA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내외 자동차 업계 및 유관기관과 교류하며 상호 협력 증진에 힘써왔다.

/김재용 기자 juk@

